

개혁신당, 선대위 출범...이준석 "전재수, '단식' 정이한에 손 내밀라"

등록 2026.05.11 11:00:54 | 수정 2026.05.11 11:34:26



[서울=뉴시스] 고승민 기자 =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.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2026.05.11. kkssmm99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이승재 기자 = 개혁신당은 11일 이준석 대표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출범했다.

선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.

공동선대위원장은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, 함익병 전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원장,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,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, 김성열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, 주이삭 서울시의원 후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.

이 대표는 선대위 첫 회의에서 TV 토론 배제에 반발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거론하고, 경쟁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"정 후보가 전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"고 했다.

그는 "상대 후보의 외면 속에 빈 토론장에 홀로 앉아야 했던 30대 도전자 전재수가 그 당시의 본인과 비슷한 나이의 정 후보를 토론장 밖에 세워두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이어 "기득권 전재수의 모습을 버리고, 도전자 전재수의 마음으로 돌아가 달라. 그날의 전재수에게, 오늘의 전재수가 손을 내밀라"며 "그것이 전 후보를 키워준 부산 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후보께서 한때 외면당하며 앉았던 그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도

리'라고 했다.

천하람 원내대표는 조응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"개혁신당 후보들만이 깨끗한 손으로 민주당의 더러운 사법 내란을 막을 수 있다"고 말했다.

천 원내대표는 "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수도 막을 수도 없다. 개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사법 내란을 막아내다"며 "이번 지방선거에서 조 후보가 법치 파괴의 시발점인 추미애 후보를 꺾는 상징적 장면을 개혁신당이 만들겠다"고 했다.

공동선대위원장인 조 후보는 "경기도에서 이변을 일으키겠다. 양당 독점 카르텔을 경기도에서부터 깨뜨리겠다"고 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ussa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